

카키는 군복과 위장색으로 사용

카키라고 하면 직물은 면 합사를 사용한 3/1의 우능으로 만든 치노판이다. 치노라 함은 차이나(중국)이다.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이 군복으로 채용한 이 옷감을 중국에서 사온 것에 유래한 듯하다. 데님진은 젊어 보이고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카키를 입었다고 한다. 치노는 가늘게 정돈된 이랑이 무수하게 사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치노에는 광택을 내기도 하고 주름을 잡은 제품도 있다. 이러한 것은 데님이나 갈성(drill)진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또 카키라고 하는 색상도 있다. 올리브색을 카키라고 부른다. 올리브색을 올리브 그린이라고는 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다. 카키는 황색을 탁하게 하여 둔하게 한 색이라고 볼 수 있고 탁하고 회색에 가까운 황색이라고 하여도 좋다. 이러한 카키를 녹색이라고 하여도 갈색이라고 하여도 틀리다고 큰 소리 낼 수 없다. 비슷한 색상이면 어디에나 붙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없는 색이기 때문이다. 포스터 컬러의 황색에 검정색을 섞어보면 녹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갈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색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카키는 군인의 특히 육군의 전투복이라던가 병기의 미채색(위장색)으로 많이 사용한다. 적이 노리기 어려운 눈에 띄기 어려운 색이라고 하는 까닭일 것이다. 카키는 오염이 눈에 띄지 않는 색도 있다.

모스그린 스웨터에 검정 새틴 미니스커트는 모양새가 좋다. 모스그린은 프랑스로 벨무스이다. 이끼의 녹색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벨이 녹색이고 무스가 이끼이다. 깊은 맛이 있는 이러한 녹색을 젊은 여성이 입으면 얼굴 색이 건강해 보인다. 이러한 모스그린은 파리에서는 겨울의 색상이다. 검정색인 것을 노아르라고 한다. 검정색은 4계절을 통하여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있다. 벨무스와 노아르의 배색은 실로 파리젠느이다. 12월이라면 녹색으로부터 크리스마스를 연상한다. 빨강과 녹색의 배색은 크리스마스 칼라다. 그래서 녹색만을 사용하여 빨강을 연상시켜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미지를 하는 까닭이다. 겨울철의 녹색은 봄철과는 달리 진하고 깊은 녹색이다. 그래서 이러한 녹색을 벨폰세라고 부르고 있다. 파리라던

가 빈의 겨울철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로딩의 코트색도 깊은 녹색이다. 이러한 녹색을 피스타시오 그린(은행열매의 녹색)과는 달리 하고 있다. 피스타시오 그린은 봄을 이미지 하는 밝은 황록색이다. 빨강과 녹색의 배색이 크리스마스 칼라로 된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겨울 잎인 녹색과 과일의 빨강에서 기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의 트리 잎이 녹색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빨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의 색이라고 한다면 신의 사랑을 의미하는 색상인지도 모르겠다.

봄을 이미지 하는 색이라고 하면 핑크를 우선 떠올릴 것이다. 핑크는 벚꽃의 색이라던가 튜립 꽃의 색이다. 녹색도 봄의 이미지 컬러이다. 이러한 녹색은 페이퍼민트 녹색과 같이 연한 녹색이다 봄의 색은 연하다. 색이 연하고 밝고 포는 가벼운 감의 색이 봄답다. 때문에 펠톤이나 라이트 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무지색인 경우에도 배색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파스텔컬러라는 아동복의 전형적인 색상이다.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젊은이의 색이다 빛의 계절의 레도에 환희 할 때가 있다. 카톨릭교도의 나라에서의 부활절 전에 축제를 한다. 그것이 카니발(사육제)이다. 이 때 입는 옷이 카니발 룩이라던가 피로에로패션 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독일이라면 그러한 오의 옷감을 카니발 룩이라던가 피에로패션 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독일이라면 그러한 옷의 옷감을 카니발 스톱이라고 하고 콤페티 칼라즈의 배색을 하고 있다. 콤페티라고 함은 파렛트할 때 버리는 가지가지 색의 찌부린 종이를 말한다. 색은 흑, 백, 적, 황, 녹색, 무늬는 큰 방울(스포츠)이라던가 봉호(바탕과 줄무늬의 굵기가 같은 스트라이프), 다이아무늬 등이다. 확실하고 강한 색을 모두 사용한 배색이기 때문에 화려한 색상 모양이다.

* 카니발(carnival)

크리스트교 국가에서 사순절 직전 3~7일에 걸쳐 행하는 제전이며 사육제라고 번역하는데, 라틴어의 카르네 발레(carne vale : 고기여, 그만) 또는 카르넬 레바레(carnem levare : 고기를 먹지 않다)가 어원이다. 기원은 로마시대로서 크리스트교의

초기에 해당하며,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로마 사람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농신제(12월 17일~1월 1일)를 인정한 것으로, 그리스도교로서는 이교적인 제전이였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계승되어 매년 부활절 40일전에 시작하는,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단식한 것을 생각하고 고기를 끊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고기를 먹고 즐겁게 노는 행사가 되었다. 1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축제와 주현제(12월제 : 1월 6일)을 합하여, 유럽의 북쪽 지방에서는 종교적 의의를 가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남국에서는 야외 축제인 카니발이 되었다.

카니발 행사는, 기원적으로는 옥외의 가장, 가면 행렬을 하고, 종이 인형으로 된 우상을 장식으로 썼는데,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농촌에서는 카니발이 봄을 맞아 풍작과 복을 비는 축제가 되어, 가면, 가장도 악령에 대한 위협이라는 뜻을 가졌으나, 도시에서는 옥외의 놀이가 되어 종이 인형의 우상 따위를 함께 끌어내며 즐기는 행사가 되었다. 옛날에는 로마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프랑스의 니스, 독일의 쾰른, 스위스의 바젤 등 로마 카톨릭의 여러 나라에서 성행한다. 이 밖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등지에서도 성행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는 별로 행하지 않는다.

환경보호의 움직임이 높아져 오고 있어 흙으로 돌아가는 섬유(생분해성 섬유)에 흥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분해성 섬유라 함은 사용 후 폐기 처분된 섬유가 토양 속이라던가 바닷물 속 등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여 지구환경이라던가 생물에 부하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물섬유인 코튼이라던가 마 등은 원래부터 분해성 섬유이다. 또 펄프를 원료로 하는 레이온도 분해성 섬유에 들어간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는 고분자 화합물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섬유의 성질을 개질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해성을 구비한 합성섬유에 대한 기대로부터 탄생한 것이 다음에 소개하는 2종류의 섬유이다. 하나는 1991년에 개발된 전분으로부터 얻어진 유산을 원료로 한 폴리카프로락톤(PCL)을 주 성분으로 하는 분해성 합성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는 토양 또는 해수 중의 미생물에 의하여 2주간으로부터 3개월에 가는 조각으로 분해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한다. 열가소성과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재와 조합시켜 그다지 색상을 중요시하지 않는 산업분야에서의 용도 전개가 가능하다. 단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는 가격이 종래 제품에 비교하면 여러 배가 된다는 점, 용점이 65℃로 낮기 때문에 염색할 수 없고 의류용으로써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의류용품, 기저귀, 생리용품, 물수건, 봉합사, 뉘싯줄 방초, 방오, 방충네트, 식목용네트, 퇴비백, 묘목상, 공사용 안전네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는 1992년에 탄생한 지방족 폴리에스터를 주성분으로 한 분해성섬유이다. 이들은 저용점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스타치(폴의 성분(는 아니고 결정성의 폴리머(분자와 분자를 이은 물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내열성(용점 180℃)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역시 용해하여 다시 방사함에 의하여 기저귀, 물수건 등에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용도로써는 PCL을 주성분으로 한 섬유와 거의 같은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더욱이 실의 굵기라던가 분해속도를 바꿀 수가 있고 열소독에도 견디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의류 전개가 가능하다.